

# 05월호

## Contents

동료상담양성교육 기초과정 2

드림팩토리\_종이접기 자조모임(13일, 27일) 4

자립생활기술훈련 - 제 3차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 ( '영화 앵그리버드 (우리말)' ) 6

자립생활주제 어가문화체험 ( 영화 <계춘할망>관람 ) 8

연대 사업 (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위원회 발족식 행사) 10

응답하라!! 강북구~~ 12

잠수종과 나비 감상문 14

이달의 정보 16

장애인들이 여행하기 좋은 명소 18

장애인 에티켓\_(지적장애) 대중음식점에서, 대화 할 때 20

이달의 시 22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23

광고 24



# 동료장애인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을 다녀오며…….

김성윤



5월 2일부터 5월 4일 까지 서울시 대방역에 있는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가 주최·주관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에 참여하여 수료하였습니다.

동료장애인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에 참여하여 참 소중하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북센터 인터넷으로 첫 출근하여 동료장애인상담가 양성교

육 기초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여성플라자로 이동하여 동료장애인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로는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만훈 소장이 초빙되어 오셨으며, 저를 포함한 9명이 동료장애인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강사로 초빙되어 오신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만훈 소장의 강의를 듣고, 같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신 동료장애인들과의 모임을 가졌으며, 주요일정은 첫째 날(5월 2일)은 'NEW & GOOD, 관계 만들기, 자립생활의 개념, 좋았던 것', 둘째 날(5월 3일)은 'NEW & GOOD, 동료상담의 개념, 인간의 본질, 장애에 대하여, 감정해방, 서포터그룹 만들기, 좋았던 것과 배웠던 것', 마지막 날(5월 4일)은 'NEW & GOOD, 관계 만들기, 자립생활이란?, 좋았던 것과 배웠던 것, NEW & GOOD, 칭찬하기, 질의응답, 좋았던 것과 배웠던 것' 등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5월 2일)은 동료장애인들과의 모임에서는 정만훈 소장의 진행과 제안으로 서로 자신의 닉네임을 정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편안이' 라는 닉네임으로 정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다른 동료장애인들은 검은 콩, 생수, 여행, 건, 하늘 등의 여러 가지의 닉네임을 각자 정하여 소개하고 말하는 모임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만훈 소장의 강의 등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5월 3일)의 모임에서는 동료 장애인들이 서로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고, 잘 생활해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제 장애를 인정하고 사회 생활을 열심히 노력하며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시간에는 서로의 장애에 대해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갖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동료장애인들과의 모임을 갖는 시간이어서 낯설었지만, 동료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만훈 소장의 강의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빙되어 오신 정만훈 소장의 “서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앉아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생각이 다르다”, “동료장애인상당가로 동료장애인을 상당하면 자신이 많이 배운다.” 는 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동료장애인 상당가가 되려면 동료장애인들과의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할 것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교육기간 중에는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새로 인턴으로 오신 동료장애인을 만나서 이야기 하는 즐거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정만훈 소장의 강의나 동료장애인들과의 모임은 동료장애인들의 저에 대한 따뜻한 말과 배려에 고마움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5월 4일)은 일정으로 강의를 듣고 그 동안의 정만훈 소장과의 질의응답과 서로간의 교육소감 등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과정의 일정이 끝나고 헤어질 때는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을 수료할 때는 수료증을 받고 단체 수료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 기타 - 자조모임

## ['종이접기 3차']

문지수

5월 13일 14:00-16:00,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실 옆 회의실인 저희 강북구장애  
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한 '자조모임 종이접기 3차'를 진행하였다.

자조모임 종이접기 3차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조모임 종이접기 3차 프로그램의 담당자로 갑자기 나로 바뀌어 처음엔 놀라긴 했지만 지금은 생각을 바꾼 상태다.

먼저 회의를 하려고 먼저 말문을 열었다.

“자조모임 종이접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차후 모임 약속 시간 및 요일, 작품 관련 주제 선정, 재료 구입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달 차후 모임은 첫째 주 금요일,  
셋째 주 금요일로 13:00 ~ 15:00로  
정해졌다.

작품의 주제 선정은 모임 있는 날 작품을  
정해서 종이접기 책자 속에 주제로 하고  
필요 재료 있을 시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락하여 인터넷 주문 혹은  
외부로 재료 구입하는 방안으로 정해지는데  
회원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정하는  
게 좋았다.

회의를 정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종이접기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꽃밭참'이라는 주제로 학  
종이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 계획이다.

처음에 봤을 때 받침은 알겠는데 왜 꽃밭참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학 종이



에 있는 꽃무늬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찰나 해결되었다.

1인당 다른 색상으로 꽃무늬를 연상하게 되는 학 종이 8장을 준비해 회장님의 주도 하로 종이를 접는다.

하나씩 하나씩…….

같은 방향으로 8장 다 접고 나서 이어붙이 듯 진열한다.

“플로 고정해서 이렇게 하면 되요.”

이어붙이 듯 진열해놓은 8장의 학 종이의 옆 부분을 플로 고정하여 붙인다.

다 완성한 ‘꽃밭침’을 보시며 회원 분들, 나도 같이 성취감과 함께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번엔 다른 색깔로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것도 괜찮고 난 다르게 해볼래.”

회원 분들께서 좀 더 다른 색깔의 학 종이들로 고르고 나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보는 도전을 해보며 종이접어서 ‘꽃밭침’을 완성했다.

알록달록한 ‘꽃밭침’ 작품을 완성하니 얼핏 보면 바람개비 같고 장미꽃 같이 보였다.

다음 작품을 미리 선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한편으로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작품 선정하는 것 또한 괜찮았다.

추후에 센터 내 따로 작은 작품 전시회를 열어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제 3차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

['영화 앵그리버드 (우리말)']

문지수



5월 19일 12:00-16:00, 노원역 노원 롯데 시네마 영화관 (롯데백화점 10층)에서 저희 강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한 '제 3차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 [영화 앵그리버드 (우리말)]'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제 3차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 관람 영화 '앵그리버드 (우리말)'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모이는 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분주히 움직였다.

12시 되기 전에 노원 롯데백화점 내에 있는 롯데리아에 가서 참여자 수에 맞춰 햄버거 세트를 사갖고 올라와보니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한 참여자 분들이 계셔서 소소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며 약속 시간에 오실 나머지 참여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 둘씩 점점 참여자들이 왔고 배포한 명단과 참가 신청서를 작성 하시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 이제 다 온 거예요?”

명단을 보고 있던 나에게 묻는 참석자들.

“아뇨, 한 분이 안 오셨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한 분이 안 오신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서 '앵그리버드 (우리말)' 영화 팸플릿을 배분하여 단체 사진 찍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각 각 햄버거 세트로 배분하여 식사 제공했다.

“우리가 볼 영화가 뭐라고 했지?”  
 “앵그리 버드……!”  
 “애니메이션 영화라던데?” “아, 그거.”

핸드폰 게임에서 나오던…….”

“어? 이거 맛있네.”

참석자들끼리 서로 이야기꽃을 한참 피울 동안, 영화 티켓 산 후 계속해서 연락 하면서 위치 파악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영관 입장하기 전에 마지막 참가자가 왔다. 참가자 명단, 참가 신청서에 작성하시고 나서 수거하고 식사 제공으로 햄버거 세트를 배분했다. 영화관 입장해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참여자 수 헤아리고 두 명씩 입장 시켰다.

“영화 상영하시고 매표소 앞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쪽으로 꼭 와주세요…….”

상영 영화가 끝나고 나서 약속한 장소에 다 모였다. 배분한 만족도 조사지에 작성하시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참가자들을 보았다.

“선생님,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이러한 행사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나 또한 즐겁다. 다음 영화에는 참가자들이 더욱 재밌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고 차후 영화 관람 프로그램 진행 시 생각해두어야 될 점이 많으니 이번 보다 더 보완해야겠다.



# 자립생활주택 여가문화체험

## [ 영화 <계춘할망>관람 ]

박남주

지난 25일 강북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에 신규 입주자 옥영씨의 영화관람 나들이가 있었는데요, 외국영화는 자막읽기가 어려운지라 한국영화 관람을 하기로 하고 함께 고민해 본 결과 옥영씨 취향에 딱 맞는 '계춘할망' 관람을 선정 하였습니다.



'계춘할망'은 손녀딸을 잃어버린 해녀 계춘할머니와 그 주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풀어낸 드라마 형식의 영화였습니다. 영화티켓 예매 후 다른 관람객들의 연령층이 모두 50~6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옥영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다가 영화가 갈수록 너무 슬퍼져서 옥영씨도 울고 저도 펍펍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4월에 첫 입주하여 함께 거주하게 된 다른 입주자와 친목다지기 목적으로 KBS 공연을 함께 보러간 이후로 옥영씨의 첫 단독 문화체험이라 옥영씨가 계획을 짜면서 매우 신나하셨는데 영화 '홍길동'을 보려고 계획했던 것이 영화가 생각보다 빨리 상영종료가 되어서 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옥영씨가 '계춘할망'이 더 재밌었다고 평가해 주어서 다행입니다.

영화관람 전 외식체험도 진행하였는데 비빔냉면이 먹고 싶다고 하셨던 옥영씨가 당일날 마음을 바꾸셔서 비싼 회를 먹고 싶다며 어필하셔서 사실 많이 당황했습니다. 다행히도 평일런치세트로 회덮밥과 광어회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식당을 발견해서 옥영씨의 욕구와 계획예산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점심식사 후 영화예매시간까지 시간 여유가 있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날씨도 덥고 목도 타고 하여 근처 커피숍에 갔는데요, 여기서 옥영씨가 흑임자눈꽃빙수 맛에 홀딱 반해 “어이구 참 맛있네, 맛있다!”라는 감탄사를 연발하셔서 보는 코디와 활동보조인 선생님 모두 흐뭇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 피어올랐습니

다.

활동보조인에 관한 언급이 나와서 말인데요, 사지마비 최종증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옥영씨가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적응하게 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인데 4월 한 달간은 이 활동보조인서비스 시간이나 매칭 관련하여 어려움이 많아 옥영씨 본인도 그렇고 주변인들도 힘든 시기를 거쳐야했습니다. 다행히 추가시간도 이제 받았고 전담활동 보조선생님들도 구성이 되어서 이제 맘 놓고 편안히 지역사회 적응을 해 나가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옥영씨 한사람의 지역사회로의 자립으로 인해 많은 다른 시설장애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자신감과 희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성공적인 행보가 되겠지요. 아직은 옥영씨와 옥영씨의 자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의 갈 길이 험하고 멀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즐기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북센터 화이팅!



# 연대사업

##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위원회 발족식 행사]

문지수



5월 28일 16:00-18:00 (오후 4:00-6:00),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에서 구본승 위원장님이 주관한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위원회 발족식 행사에 참여하였다.

너무 서둘러서 온 걸까?

센터 식구들보다 빨리 도착해버려서 인적 드문 덕에 열심히 준비하는 과

정을 보고 있었다. 평소에 보기 어려운 다양한 사람들이 왔고 그 중에 감사인지 레이저 빔이 나오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어 유난히 낯설지 않은 사람을 목격했다. 준비 과정이 끝나갈 무렵, 센터 식구들도 와서 자리에 착석했고 발족식이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평화의 소녀상’ 작가 ‘김서경’ 이라고 합니다.”

머디서 많이 들어본 성함에 유인물을 보다가 아, 하고 탄성을 질렀다. 소녀상 제작하신 김운성 작가의 아내분이시자 부부라는 사실에 놀라웠다.

그녀는 ‘평화의 소녀상’ 에 얽힌 이야기를 비롯하여 소녀상의 각 상징하는 의미, 종류도 설명해줬다.

“저는 강북구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제작 기간은 우리들





이 흔히 알고 있는 앓아있는 소녀상 같은 경우 3개월이고 새 디자인으로 구상하여 제작할 경우 6개월이다.

2부에서는 참여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소개 하고 본격적으로 발족식 행사의 막이 올려 시작 됐다.

“한일 협정을 하여 일본은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묻으려 고하기에 무효해야 합니다.”

“그런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외교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에 대해 반대합니다.”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계획에 대하여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모금 목표는 3,500만원 ~ 5,000만 원으로 하여 강북구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주민 분들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발족식 행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모로 생각이 들었다. ‘평화의 소녀상’ 제작한 김서경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좋았고 강북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자리다.

한일협정을 제안한 한국 정부의 생각에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그들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중, 고등학교 수업에 있는 근현대사를 외면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칭해서 왜곡시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한일 협정 무효를 하여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지고 강북구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주민들이 이해결된 위안부와 소녀 상 건립할 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응답하라!! 강북구~~

이하용

5공화국 시절 1987년 4월 토목·건축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일우공영이 서울시로부터 종합휴양업 제1호의 인가를 받아 개장한 종합 워락시설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워락시설과 풍부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한편 체육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의 향상,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설치·운영되었다.

11만 5000평의 부지 안에 실내·옥외 수영장과 아이스링크 등의 운동시설과 롤러코스터, 바이킹 등의 놀이시설 27종이 있었다. 또, 어린이극장을 비롯한 야외 공연장과 청소년회관, 각종 편의·휴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밖에, 눈썰매장, 물개쇼장, 골프연습장이 있고, 넓은 숲에는 야외예식장도 마련되어 있었다.

놀이동산이라고 하니 문득 1993년 따뜻한 봄날에 단체로 연극을 보러갔던 날이 떠오른다. 93년 따뜻한 봄날은 나에겐 첫사랑의 아픔이지만 말이다. 나와 내가 짝사랑하던 여자아이는 연극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무도 몰래 빠져나와 놀이기구를 돌면서 신나게 탔던 기억이 난다. 아마도 오매불망 짝사랑하던 그 아이와 둘만의 시간이라

서 더욱 더 잊지 못하고 있었나보다. 그날 이후 무연고생이었던 그 아이는 부유한 가족에게 입양되어 갔지만, 그 가족의 일원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방황하며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삶에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를 보니 그 아이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내 자신에 원망스러웠다. 14살 무렵의 기억은 아직까지도 슬프도록 젊은 날들에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 후 드림랜드의 운영업체인 일우공영은 1996년 상호를 주식회사 드림랜드로 바꾸고 본사를 강원도 원주로 옮기면서 원주 치악산 드림랜드를 개원하였다.

치악산 드림랜드는 지역 주민과 치악산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레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외에, 향토동물원을 설치하여 야생조수의 인공증식에 힘을 쏟고, 이들을 방사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의 산 교육장을 제공하였다. 2008년에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이 일대는 2009년 10월에 녹지공원인 '북서울 꿈의숲'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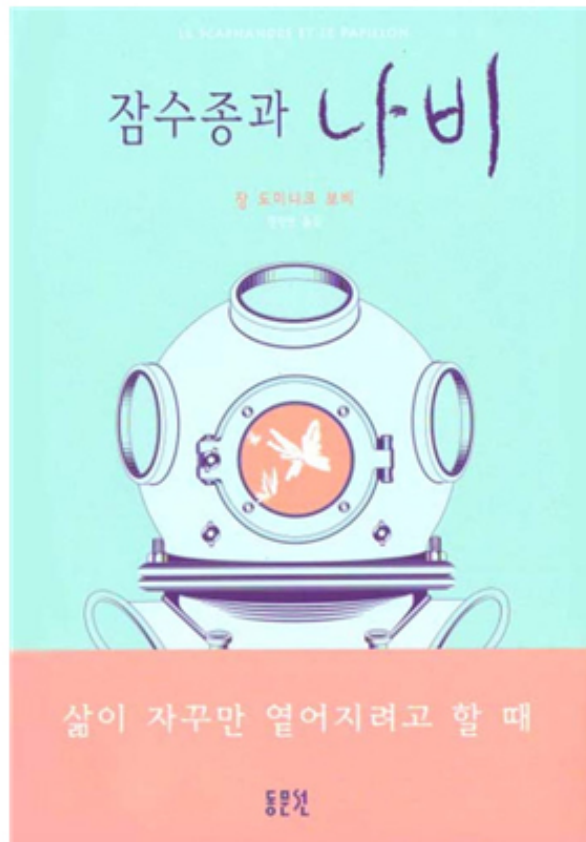
자료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712&cjId=40942&categoryId=31937>

사진 출처- [http://www.memorystory.net/bbs/board.php?bo\\_table=B58S01&wr\\_id=1](http://www.memorystory.net/bbs/board.php?bo_table=B58S01&wr_id=1)

# ‘잠수종과 나비’ 감상문

전난희



장 도미니크 보비의 ‘잠수종과 나비’는 몇 월 전 영화로 먼저 접하게 되어 알게 되었고 동명의 책을 읽게 되었으며 이 책이 원작이라고 한다.

‘잠수종과 나비’의 내용은 패션지 <엘르> 편집장 장 도미니크 보비는 1996년 12월 8일 금요일 오후 뇌졸중으로 쓰러진다. 그의 나이 43세 때였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20일 만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그. 하지만 전신 마비상태로 오직 왼쪽 눈꺼풀 만 움직일 수 있었고, 몸은 항상 옥죄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잠수종에 갇혀버린 느낌이었다. 그는 ‘로크드인 신드롬(Locked-In syndrome)’ 이었던 것이다.

그는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를 잠수종을 입고 있는 듯 한 느낌이라고

표현하였고, 본인의 뛰어난 상상력과 공상(空想) 능력을 나비와도 같다고 표현하였다. 그가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담당의사에게 털어놓았으나 담당의사는 다시는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며 장 도미니크 보비에게 크게 호통을 쳤고, 움직일 수 없는 육체 때문에 자살조차 할 수 없는 신세였다. 장 도미니크 보비는 잠수종에 갇혀 버려서 신체는 움짱달짝도 못하였지만, 의식과 정신은 무한대로 상상력을 펼쳐서 자기의 삶에 끝을 붙잡고 있었다.

“잠수종이 한결 덜 갑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나의 정신은 비로소 나비처럼 나들이 길에 나선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시간 속으로, 혹은 공간 속으로 날아들며 날아다닐 수도 있다. 불의 나라를 방문하기도 하고, 미다스 왕의 황금 궁전을 거닐 수도 있다.” - 16쪽

그에게 있어 가장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 건 다름 아닌 일요일이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水)치료와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을 받아가며 바쁘게 보내다가 일요일이 되면 치료해주었던 치료사도 밥을 먹여주었던 간병인도 일요일에는 쉬기 때문에 그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거나 재미없는 채널에 맞춰서 있는 TV를 보거나 읽고 싶은 책이 바로 앞에 있어도 읽을 수 없는 신세였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나는 창가에 쌓인 책들을 바라본다. 오늘은 아무도 나에게 책을 읽어 줄 사람이 없으니, 그저 쓸모없는 도서관처럼 느껴진다. 세네카, 졸라, 사토브리앙, 발레리 라르보가 겨우 1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지만 가혹하게도 나는 가까이 갈 수가 없다.” - 149~150쪽

그는 담당의사가 소통의 방법(많이 쓰는 알파벳 순서로 종이에 적어 불러주는 식)으로 왼쪽 눈꺼풀만으로 한 단어 한 단어 만들어가며 이 책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하루가 교박 걸려서 완성할 수 있는 분량이 A4용지 반이었으나 그로 하여금 글쓰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있어 아이들은 미안함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는 존재였다.

장 도미니크 보비는 '잠수종과 나비'가 출간 되고 닷새 만에 생을 마감하였다고 한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15개월 만에 힘겨웠던 잠수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이다.

# 이달의 정보

김소연

## 장애인 가족과 부모 위한 미술치료, 부모교육 프로그램 열린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 “愛術(애술), 사랑을 말하다” 5월~11월 진행  
사단법인한국장애인문화협회(아래 문화협회)가 장애인 가족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해 장애인 가족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협회는 “愛術(애술), 사랑을 말하다” 프로그램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장애인 가족 미술치료와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가족 미술 치료는 8주씩 총 세 차례 진행되며, 회차별로 3가족씩 참여가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봉천역 인근 미술심리상담 센터에서 진행된다. 부모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고, 선착순으로 30명까지 신청을 받는다. 두 프로그램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문화협회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 및 개인이 중요하다”면서 “한 구성원의 장애로 인한 역동적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 가족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가족이 갖고 있는 개별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모들도 자녀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족은 문화협회 홈페이지(<http://www.bluesky82.org>)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이메일(bluesky-8288@hanmail.net)이나 팩스(02-857-6281)로 보내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정보는 문화협회 문화기획팀(02-859-8288)으로 하면 된다.

출처-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644&thread=04r09>

## 정부 사회보장사업 정보, 시각장애인 접근 쉬워진다

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가이드북' 시각장애인 맞춤형 책자 제작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제 디지털 문서 규격 '데이지' 준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종합적 정보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발간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가이드북'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제 디지털 문서 규격인 '데이지(디지털 접근 정보 시스템, Digital Accessible System)' 형태로 제작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데이지는 목차를 구분해 문서를 변환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한결 쉬워진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가이드북'에는 중앙부처 371개 사회보장제도 개요, 지원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이 생애주기별로 정리되어 있다.

시각장애인 맞춤형 책자는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홈페이지와 국립장애인도서관(<http://nlid.nl.go.kr>)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http://dream.nl.go.kr>)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책 수혜자가 정책 정보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648&thread=04r09>

## 2016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 기 간 : 2016. 4. 29. ~ 5. 30.
- 대 상 :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장 소 : 강북구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 신청방법 : 직접 제출 또는 팩스송부(901-6508) 또는 인터넷 접수 (아래 2 웹사이트 중 택 일)
  - 1. [http://kras.seoul.go.kr/land\\_info](http://kras.seoul.go.kr/land_info)
  - 2. <http://www.realtyprice.kr>
- 문의처 : 강북구 세무과 과표평가팀( ☎ 901-6556 ~ 6558)
  -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은 국토교통부에 문의 ( ☎ 1644-2828 )

출처-

<http://www.gangbuk.go.kr/beam1/boardView.do?post=310905&page=&boardSeq=41&key=1120&category=&searchType=&searchKeyword=&searchFile=&subContents=&mpart=&part=&item=>

# 장애인들이 여행가기 좋은 명소

이하용

푸르른 5월이 시작되고 여기저기 꽃망을 터치는 소리와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가득 가득하다. 이처럼 여행가기 약 좋은 날씨를 맞이하여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는 여행지를 알아보았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56 (남원읍)에 위치한 ‘휴애리자연생활공원’이다. 이곳은 제주 속의 작은 제주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가장 제주다운면서도 아름다운 향토 공원으로 한라산 자락이 손끝에 잡힐 듯 한 곳에 있는 건강한 숲과 제주의 향기가 살아 숨 쉬는 자연생활체

험공원이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미끄럼틀 타는 흑돼지야 놀자 먹이주기체험, 감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며 직접 감귤을 따는 감귤체험,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타블로와 하루가 체험하고 간 승마체험, 제주 생활가축 먹이주기체험(산토끼, 다람쥐, 흑염소, 산양), 장수풍뎅이, 나비, 사슴벌레 직접 관찰해 보는 곤충테마 체험관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미꾸라지 잡기체험, 자연수영장, 돌탑 쌓기 체험, 야생화 올레길 체험, 화산송이 맨발 체험, 전통놀이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제주 문화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 무장애관광정보에 의하면 주차는 2015년 주차구역 포장 계획으로 장애인주차구역 4개 추진 중으로 현재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주차는 가능하다고 하고(15.7.14) 접근로도 대부분 평지로 휠체어 이동 가하며, 휠체어 대여와 객실 안에서 쓸 수 있는 지팡이 대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장애인 화장실은 당연히 있다. 문의사항은 064-732-2114이고, 이용시간은 09:00 ~ 18:00 (입장마감 16:30)이며 단, 감귤체험, 승마체험 이용 시 16:00까지 입장해야 체험가능하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국립 유명산자연휴양림’이다. 이곳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79-53 (설악면)이고, 경기도 가평군은 청평유원지, 산장유원지, 명지계곡, 운악산,



현등사, 용추계곡 등 군 일대가 전부 관광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평군 설악면 가 일리에 자리 잡은 유명산 역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이다. 자연휴양림은 유명산유원지, 즉 입구지 계곡(유명산 계곡) 안쪽으로 조성되어 있다. 산은 그리 높지 않으나, 이 입구지 계곡은 깊은데다 수림이 무거워있어 마치 설악산의 천불동계곡을 방불케 한다. 설악면에서부터 자연휴양림까지의 길은 고향 가는 정취를 맛볼 수 있다. 기암괴석과 계곡의 물을 따라 산행을 하면 완만하면서도 급한 등산로가 교차되어 지루하지 않으며 숲속의 각종 체력단련시설은 자신의 체력을 점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6km의 순환도로와 주차장, 멋진 통나무집, 오토캠핑장은 콘크리트 문화에 젖은 우리들에게 색다른 정취를 느끼게 한다. 대자연속에 설치되어 있는 수련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보호사상을 고취시키고 호연지기를 키우는 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무장애관광정보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있고, 출입통로에 단차와 경사가 거의 없으며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 문의사항은 031-589-5487이고, 이용시간은 숙박시설 당일은 15:00~익일 12:00이며 일일개장은 09:00~18:00이다.



마지막으로 소개 할 곳은 이미 많이 알려진 '아침고요수목원'이다 이곳은 속령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여 한국의 미를 듬뿍 담은 정원들을 원예학적으로 조화시켜 설계한 원예수목원이다.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정원을 갖추고 있고, 울창한 잣나무 숲 아래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도 있어 도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설계자(한상경, 삼육대학교 원예학 교수)가 명명하였으며, 1996년 5월에 개원하였다. 20개의 주제를 가진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어진 잔디밭과 화단, 자연스러운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을 실제 한반도지형 모양으로 조성하여 최고 절정의 꽃으로 표현한 하경정원(Sunken Garden)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곳이다.

또한, 이곳에는 백두산 식물 300여종을 포함한 5,000여 종의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영화 '편지'를 시작으로, 영화 '조선명탐정', '종독',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 '미남이시네요', '이죽일 놈의 사랑', 예능 '무한도전' 등의 촬영장소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있고, 장애인은 이용금액이 무료이다. 경사가 가파르지만 휠체어 대여 가능(수동휠체어 15대)함으로 도보가 불편한 장애인들도 가볼만한 곳이다.

출처 - <http://korean.visitkorea.or.kr/>

# 장애인 에티켓

[지적장애] 대중음식점에서, 대화 할 때

전난희



대중음식점에서 메뉴 선택 시

## 대중음식점에서 메뉴 선택 시

정신지체장애인이 메뉴를 읽지 못할 때는 메뉴를 읽어주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글씨로만 되어있는 메뉴에서 음식을 선택하게 하기 보다는 음식그림을 보면서 선택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돈 계산 시

## 돈 계산 시

정신지체인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가 돈 계산이므로 비장애인이 대신 계산해주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화할 때

정신지체장애인이 사용하는 말의 발음이 불명확하고 단어선택이 미숙하더라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어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비장애인은 발음을 분명하게 천천히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몸짓 등의 행동을 덧붙여 이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이 지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나이 어린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데 생활연령에 맞게 존칭어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출처-

[http://disability.seoul.go.kr/lifeinfo/etiquette\\_view.jsp?Depth=4611&idx=13&no=48#con](http://disability.seoul.go.kr/lifeinfo/etiquette_view.jsp?Depth=4611&idx=13&no=48#con)

[http://disability.seoul.go.kr/lifeinfo/etiquette\\_view.jsp?Depth=4611&idx=13&no=51#con](http://disability.seoul.go.kr/lifeinfo/etiquette_view.jsp?Depth=4611&idx=13&no=51#con)

#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행복이라고

이진희

잘해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네가 안 되는 것은 노력 부족이다.

이런 말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 이제 말한다.  
슬퍼도, 아파도, 외로워도 괜찮은 척하지 말자고, 그렇게 어른인  
척하지 않아도 된다고.

늦어도 괜찮다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행복이라고.

\_이진희 『어른인척』 중 P 007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조모임 보치아 경기 공지

2016 자조모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2016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자조모임 보치아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치아 경기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사 업 명 : 자조모임 『보치아』
- ◆ 일 시 : 2016년 03월 ~ 11월 (자세한 일정은 추후공지)
- ◆ 장 소 : 추후공지
- ◆ 대 상 : 센터 내 회원, 이용자 및 지역 장애인
- ◆ 모집인원 : 6명 (장애인 6명)
- ◆ 모집기준 : 보치아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 ◆ 신청방법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www.kbcil.co.kr](http://www.kbcil.c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  
E-mail - [kbcil@hanmail.net](mailto:kbcil@hanmail.net)  
팩 스 - 0303) 0799-1758
  
- ◆ 문 의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 991 - 7776

